

장식사는 대단히 아름답고 화려함이 있으나 약한 실이다

셔닐 트위드라고 하는 팬시 트위드가 있다. 이러한 장식성이 풍부한 옷감을 사용한 여성복은 키모노의 화려함에 지지 않는 양복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키모노의 모습을 제일로 하기 때문에 양복을 착용하는 사람은 이것에 자만하면 안된다. 따라서 금빛의 라메사를 넣어 짜기도 하고 형형색색의 테이프 조각을 넣기도 한 듯한 실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는 모충과 같은 외간의 몰사(셔니사라고도 한다), 루프가 있는 루프사, 작은 모옥이 뿌려져 있는 듯한 네프가 들어 있는 등 다채롭게 하여 바뀐 형상의 실인 장식사(팬시얀)를 사용하여 화려한 옷감이 만들어진다. 양모로부터 제직사를 만들기 전의 중간제품인 톱도 이용되고 있다. 톱은 연필정도 굵기의 것으로 소모를 경사 방향으로 하여 평행하게 속으로 만든 것이다. 때문에 경사방향으로 당기면 소모가 뿔어져 끊기게 된다. 물론 경사 방향에 직각으로 문지르면 잔털이 생기게 된다.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소모의 원료의 양호함을 그대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버리기 어려운 매력이 있다. 장식사는 대단히 아름답고 화려함이 있으나 약한 실이다. 이러한 장식사를 잘 이용하여 짠 팬시 트위드는 당연히 고가이다. 고가이기 때문에 튼튼하다고 하는 생각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튼튼함보다는 화려함을 생명으로 하는 옷감이기 때문이다. 서로 어울려 통근하는 차내에서라든가 자전거로 출근하는 등으로는 마찰되어 얼마 안되어 끊기는 일이 생길 것이다.

* 팬시얀(fancy yarn) : 짜놓은 천 표면에 특수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방적할 때 특수가공한 실로써 무늬실 · 변형실 · 장식실 · 의장실이라고도 한다.

이 가공방법에는

① 연사공정 즉 실을 꼬는 단계에서 만든 것

② 심사(芯絲)에 별도의 의장효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한 실을 감는 것,

③ 슬라이를 쓴 것

④ 멜란지 실을 쓴 것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널리 응용되는 것은 연사에 의한 것으로, 심사·꼬임실·누름실 등 세 올로 구성되며, 심사에 장식효과를 내기 위하여 꼬임실을 꼬아 붙이고, 이것만으로는 약하므로 다시 누름실을 써서 심사에 고정시킨다. 이 외에 방적공정의 앞 단계에서 슬라이버로 만드는 슬립얀, 부분적으로 날염한 장식실 등이 있고, 또 심사에 의장효과가 있는 실을 감아서 만든 밀라니스얀 등이 있다.